

한국 남녀 임금격차 세계2위

95. 8. 18

통계청 '여성활동 국제비교'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도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체적인 지위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간한 '여성의 사회활동 실태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65년 37.2%에서 93년에는 47.9%로 늘었으나 임금 평균은 여성의 52.2%에 불과해 일본

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남녀 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5면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전문기술 및 행정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 칼러' 직종의 종사자 비중이 25%에 그쳐, 60% 안팎인 미국(58.8%) 덴마크(69.9%)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2%로 30%를 웃도는 북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북한(20%) 미국(10%)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수 기자